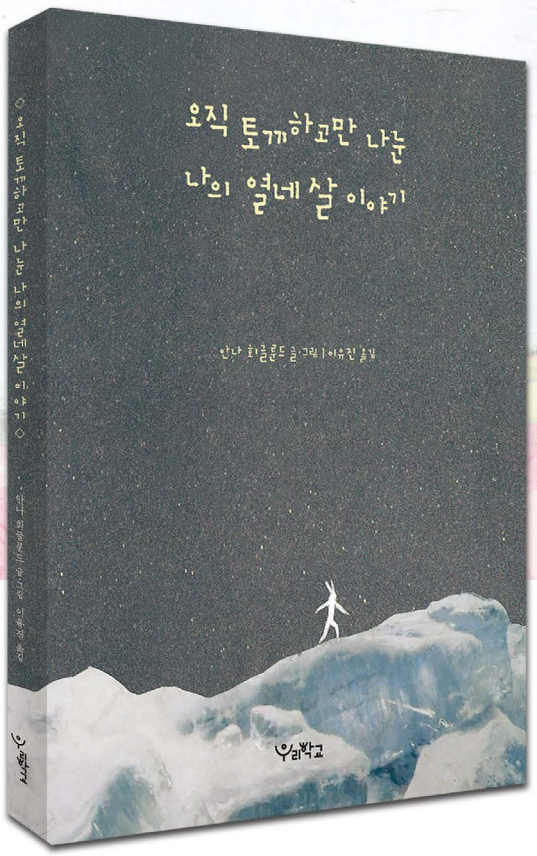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구성안**

양재고등학교 국어교사 엄아람



오직 토끼하고만 나눈 나의 열네 살 이야기

(청소년 문학)

■ 책 소개

주인공 토끼는 올해 나이 열네 살, 태어나자마자 후회하기 시작했다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지막이 털어놓는다. 소녀인 듯 소년인 듯 독자가 토끼의 성별을 가늠하기 쉽지 않지만 문제될 것은 없다. 지금 토끼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답게, 온전히 나인 채로 사는 것이 가능한지의 문제다.

일상을 뒤흔들 만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멀쩡히 숨 쉬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토끼의 일상은 버겁고 피곤해 보인다. 행복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은 점점 가물하고, 엄마 아빠 두 분의 사이는 멀어져만 간다. 자신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그 틈에서 새어 나오는 불편한 소리들은 너무나 선명하고 또렷하게 들려온다.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애쓸수록 토끼는 뭔가 어긋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마음과 다른 말이 툭 튀어나와 버려서 친구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니 별일 아닌 일들이 문제가 되고 만다.

엄마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은 토끼의 이러한 모습을 그저 '예민해서 호들갑을 떠는' 것이라고 여긴다. 오해와 편견에 일일이 맞서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에, 토끼는 "아니요"라고 답하고는 자기만의 방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갈 뿐이다. 그렇다고 토끼 곁에 마음을 나눌 이가 없는 건 아니다.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고 소통하는 존재, 할아버지가 있다. 할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세상의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다양한 풍경을 바라보게 하였으며, 더 넓고 깊은 생각의 세계로 토끼를 이끈 장본인이기도 하다.

토끼는 할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 삶을 향한 힘의 원천을 새로이 찾아나간다. 두 사람은 때로는 시처럼, 때로는 철학처럼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막막하다고 여겼던 삶의 문제를 되새겨 본다.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동안 토끼는 두려움과 불안을 품었던 어제를 이해하고, 비로소 오늘 이 모든 순간을 이해와 용기로 껴안는다. 그렇게 토끼는 자기 자신과 세상을 서서히 깨달아 가는 것이다. 세상은 쉼 없이 모습을 바꿔 갈 뿐이므로, 존재하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면서.

수많은 타자들과 지낸다는 것, 사회성을 요구받는 것, 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차이를 존중하는 것, 예민함을 감추고 살아야 하는 것 등 주인공이 처한 문제는 십대뿐 아니라 자의든 타의든 '노출된 일상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현대인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본 고민들이다. 자존감의 높낮이가 아닌 자존, 그 자체를 찾아 나가는 토끼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동안 독자들은 지금 여기에 머무는 모든 풍경을 가슴에 새기며 '나의 마음'을 찬찬히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조금 멀리, 스웨덴에서 날아온 토끼의 이야기를 읽는 방법은 다양하다. 누구에게는 그림책으로, 누구에게는 철학책으로, 누구에게는 한 편의 산문시나 일기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중 무엇도 틀리지 않은 접근이다. 문화와 생활환경이 서로 달라도, 살아가면서 고민에 처하는 동일한 지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 책을 쓴 안나 회글룬드는 스웨덴의 엘사 베스코브 상, 아우구스트 상, 독일 아동청소년문학상을 받은 저명한 작가로 콜라주 기법을 활용하여 독특하고 개성 있는 그림 세계를 펼쳐 보이며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사춘기 #정체성 #자존감 #관계 #내면세계 #마음

■ 학습 목표

서툰 인간관계와 어설픈 자존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비슷한 고민을 겪고 있는 인물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공감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책 속 주인공의 말을 나의 언어로 해석해 보고, 그 내면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마음도 들여다보게 됩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나다움'은 무엇인지, 어떻게 나를 설명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고,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통해 마음을 열고 타인과 소통하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① '토끼'는 어떤 특성을 지닌 사람인지, 토끼의 심리 상태는 어떠한지 이해합니다.

② 온전한 '나다움'이 무엇이고 어떻게 남들에게 나를 설명할 수 있을지 생각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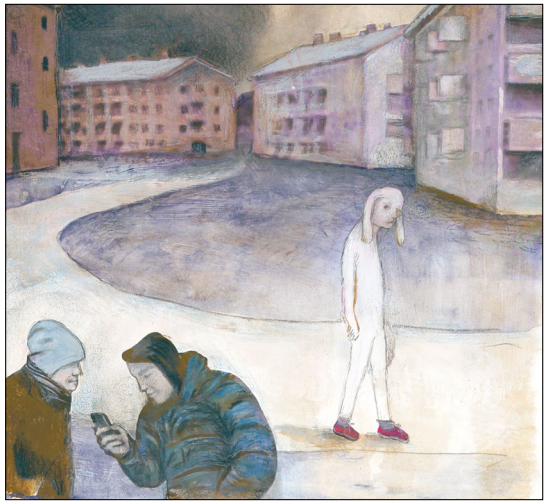
③ 타인과 서로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니다.

■ 차시별 활동 계획

차시	단계	활동 내용	비고
1	읽기 전	[활동1] 그림 읽기 [활동2] 이미지의 특성 찾기 [활동3] 나와 비슷한 이미지 찾기	모둠 활동
2	읽기 중	[활동1] 인상적인 구절 찾기 [활동2] 주인공의 심리 분석하기	모둠 활동
3	읽기 후	[활동1] 주인공의 성향 파악하기 [활동2] 짧은 리뷰 쓰기 [활동3] 다른 소설과 엮어 읽기	
4	읽기 후	[활동4] 나를 빗대어 보기 [활동5]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	모둠 활동
5	읽기 후	[활동6] 나만의 이야기 쓰기	
6	읽기 후	[활동7] 작은 책 만들기	준비물 : A4 도화지, 색연필이나 사인펜, 가위
선택	심화 학습	〈레이디 버드〉 감상하기	

읽기 전 활동 ① 그림 읽기

다음 그림을 감상해 봅시다. 그림이 주는 느낌이 어떤가요? 그림 아래에 나의 느낌과 생각을 써 보고, 친구들의 감상과 비교해 봅시다.



읽기 전 활동 ② 이미지의 특성 찾기

다음 이미지 속 사물들이 소설 속 인물이 된다면,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일지 상상하여 묘사해 봅시다.

예) 힘이 세고 내면이 단단한 사람. 때론 부딪혀 이리저리 치이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늘 당당하고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 우직하고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

읽기 전 활동 ③ 나와 비슷한 이미지의 사물(동물) 찾기

나와 가장 비슷한 이미지를 가진 사물 혹은 동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적어 봅시다.

나와 가장 비슷한 이미지의 사물(동물)	그렇게 생각한 이유

2차시

읽기 중 활동 ① 인상적인 구절 찾기

책을 빠르게 훑어 읽어 보고, 가장 눈길을 끄는 구절을 찾아 써 봅시다.

- 인상적인 구절

- 인상 깊었던 이유

읽기 중 활동 ② 주인공의 심리 분석하기

1. 책을 천천히 다시 읽으며 이야기 속에 나오는 토끼의 말들을 바탕으로 토끼의 마음을 분석해 봅시다.

토끼의 말	토끼의 마음
세상에 나오기 무섭게 후회했어.	
어떤 소리든 무척 잘 들렸거든. 귀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시간이 가면서 “아니요.”라는 말을 아주 잘하게 되었어.	
함께 하는 꿈을 꿀 때도 있어. 그러나 그 일에 대해 안다는 게 가능하긴 할까?	
문득 올려다보니 어디든 빠짐없이 그 말이 쓰여 있는 거야. 의미 없다. 모든 건 의미 없다.	
사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좋아.	예) 워낙 예민하고 걱정이 많은 성격이라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들어하지만 좋은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터놓고 어울리고 싶은 마음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사실은 친구를 사귀고 싶어하는 것은 아닐까?

가끔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나는 나 아닌 다른 누군가로 변장한 것만 같아.	
만일 내가 뭔가를 이해한다면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거야.	
어떤 날엔 배 속에 쑤셔 박힌 커다란 포크가 창자를 스파게티처럼 돌리고 있어.	
재미있는 일 뒤에는 그걸 조금 비튼다면 보이는 슬픔의 그림자가 어둠을 드리우지.	
할아버지와 눈빛이 마주쳤을 때, 나 자신을 보았거든.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는 같았어.	
내가 나 자신한테 놀라서 도망쳐 버렸다면 어쩌지?	
사람은 자기 자신의 가장 절친한 친구일지도 몰라.	
오늘 나는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고 느껴.	

2. 내가 분석한 토끼의 심리와 모둠 친구들이 분석한 토끼의 심리를 비교해 보고, 토끼의 혼란스러운 심리의 원인이 무엇인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3차시

읽기 후 활동 ① 주인공의 성향 파악하기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토끼의 성별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도 말해 봅시다.

2. 토끼는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요?

3. 작가는 주인공을 왜 '토끼'로 설정했을까요?

읽기 후 활동 ② 짧은 리뷰 쓰기

다음은 이 책의 뒷표지에 실려 있는 서평입니다. 이 글처럼 나도 이 책을 읽은 후 느낀 점을 5줄 이내의 리뷰로 작성해 봅시다. 이 책에 대한 별점도 매겨 봅시다.

> 토끼는 약하고 예민하다. 자다가도 바스락 소리만 나면 귀를 쫑긋 세우고 언제든 후다닥 도망간다. 책 속의 토끼는 지금 십 대의 마음이다. 거울 속에 비친 것이 '나'임을 알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세상은 무섭고, 큰 귀로 너무 많은 게 들린다. 많은 사람 속에서 혼자라는 생각이 갈수록 커진다. 내 안에 머물 때만은 안전하지만 이젠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걸 알아 더욱 혼란스럽다. 십 대가 겪는 이러한 불안과 예민한 정서를 섬세하게 그려낸 책이다.
>
> _ 하지현(정신과 전문의)

별점 : ☆ ☆ ☆ ☆ ☆

리뷰 :

읽기 후 활동 ③ 다른 소설과 엮어 읽기

다음 소설의 일부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나는 삶을 너무 빨리 완성했다.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라는 목록을 다 지워버린 그때, 열두 살 이후 나는 성장할 필요가 없었다.

누가 나를 쳐다보면 나는 먼저 나를 두 개의 나로 분리시킨다. 하나의 나는 내 안에 그대로 있고 진짜 나에게서 갈라져나간 다른 나로 하여금 내 몸 밖으로 나가 내 역할을 하게 한다. 내 몸 밖을 나간 다른 나는 남들 앞에 노출되어 마치 나인 듯 행동하고 있지만 진짜 나는 몸 속에 남아서 몸 밖으로 나간 나를 바라보고 있다. 하나의 나로 하여금 그들이 보고자 하는 나로 행동하게 하고 나머지 하나의 나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때 나는 남에게 '보여지는 나'와 '바라보는 나'로 분리된다. 물론 그 중에서 진짜 나는 '　　나' 가 아니라 '　　나' 이다. 남의 시선으로부터 강요를 당하고 수모를 받는 것은 '　　나' 이므로 '　　' 진짜 나는 상처를 덜 받는다. 이렇게 나를 두 개로 분리시킴으로써 나는 사람들의 눈에 노출되지 않고 나 자신으로 그대로 지켜지는 것이다.

_은희경, 「새의 선물」 중에서

1. '바라보는 나'와 '보여지는 나' 중 빈칸에 들어가기에 알맞은 말을 선택해 써 봅시다.

2. 이 소설의 화자인 '진희'가 자기 자신을 두 개의 나로 분리한 이유를 추측해 봅시다.

3. 이 소설의 화자인 '진희'와 '토끼'가 대화를 나눈다면 어떤 내용일지 상상하여 써 봅시다.

토끼: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애쓸수록 나는 더 이상해져.

진희:

토끼:

진희: 나는 일부러 슬픔을 느끼는 나를 뚫어져라 쳐다볼 때가 있어.

토끼: 언젠가는 세상으로 나가서 나를 설명해야 하겠지?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

진희:

읽기 후 활동 ④ 나를 빗대어 보기

토끼의 마음에 나를 빗대어 다음 질문에 답해 봅시다.

1. 나도 토끼와 비슷한 생각과 느낌을 가져 본 적이 있는지 떠올려 봅시다.

① 토끼의 생각과 느낌 중 나와 비슷하다고 느꼈던 부분을 말해 봅시다.

② 언제, 어떤 상황에서 토끼와 비슷하다고 느꼈나요?

③ 그런 생각과 느낌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은 적이 있나요?

2. 내가 토끼와 다르다면 어떤 점이 다른지 말해 봅시다.

읽기 후 활동 ⑤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

1.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다음 물음에 대한 솔직한 자신의 마음을 골라봅시다.

	아니다	그때그때 다르다	그렇다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곤 하나요?	1	2	3
다른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참을 수 없나요?	3	2	1
많은 친구들과 어울려 떠들며 노는 것을 좋아하는 편인가요?	1	2	3
어떤 일이 잘되지 않아도 화를 내지 않는 편인가요?	3	2	1
의견이 대립될 때 양보 없이 내 의견을 끝까지 주장하나요?	1	2	3
친구들에게 무엇이든 베풀기를 좋아하는 편인가요?	3	2	1
종종 슬프거나 우울한 기분에 혼자 빠져들곤 하나요?	1	2	3
싫은 것을 싫다고 말하지 못하고 참는 경우가 많나요?	3	2	1
다른 사람에게 짓궂은 말이나 행동을 자주 하는 편인가요?	1	2	3

부모님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편인가요?	3	2	1
욕심나는 것을 갖지 못하면 두고두고 기분이 언짢은가요?	1	2	3
내 생각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영향받는 편인가요?	3	2	1
기쁘거나 슬플 때 내 감정을 마음껏 표현하나요?	1	2	3
기분이 나쁘면서도 겉으로는 좋은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나요?	3	2	1
무엇이든 결정할 때 여러 사람의 조언을 먼저 듣는 편인가요?	1	2	3

점수를 모두 더해 보세요. 나는 어떤 유형일까요?

15~24점	25~34점	35~45점
[내가 먼저야! 유형]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을까요?	[상황에 맞춰! 유형] 언뜻 보기에 고민이 없는 당신! 그래도 늘 자신의 마음에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나는 괜찮아! 유형] 너무 착한 아이로만 지내느라 스트레스 받고 있지는 않은가요?

2. 위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모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자신이 생각하는 스스로의 모습과 친구들이 바라보는 모습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봅시다.

5차시

읽기 후 활동 ⑥ 나만의 이야기 쓰기

'나'를 주인공으로 하여 이 책처럼 나의 생각과 느낌을 짧은 소설로 표현해 봅시다.

1. 다음의 질문에 대한 답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 어렸을 때의 나는 어떤 아이였나요?
- 나와 가까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 언제 나는 혼란스러운 느낌을 가지나요?
- 내가 두려워하는 건 무엇인가요?
- 거울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하나요?
-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때의 나는 어떤가요?
- 정반대되는 생각이 동시에 들기도 하나요?
- 외로울 때면 나는 어떻게 하나요?
- 내가 바라는 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2. 다음에 제시된 구절들을 중간중간에 넣어서 한 편의 짧은 글을 완성해 보세요.

① 년 전 어느날 나는 세상에 나왔어.
어렸을 때부터 나는

② 사람들은 내가 고 생각해. 그렇지만 나는

내가 자주 느끼는 감정을 나타내는 말은

③ 거울 속을 바라보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나는

④ 어떤 날엔

라고 생각하면 끔찍해.

⑤ 사실 내가 바라는 건

어쩌면 나는

⑥ 하지만

3. 내가 쓴 글에 제목을 붙여 보세요.

읽기 후 활동 ⑦ 작은 책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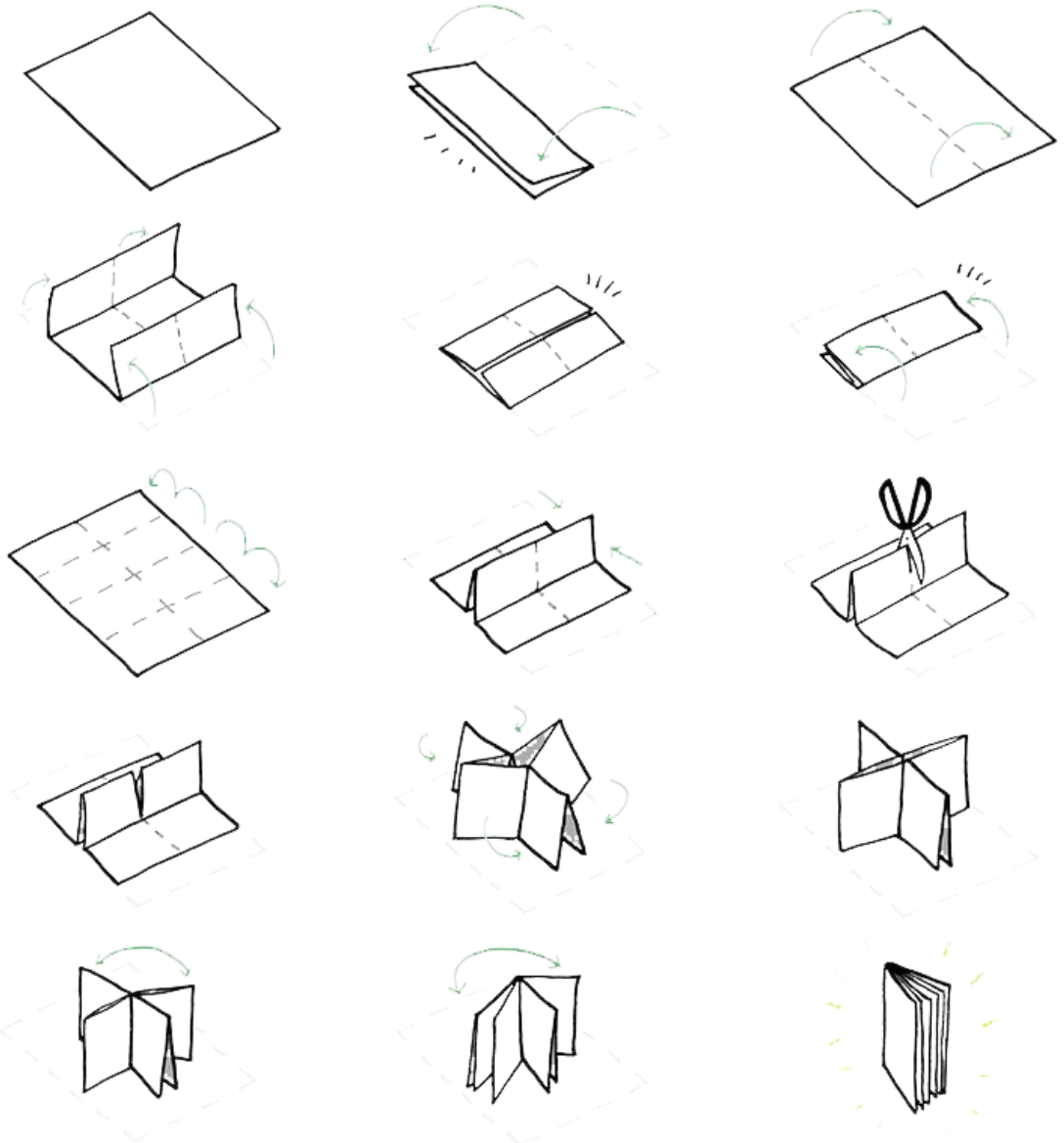
앞 시간에 쓴 글을 가지고 8면짜리 작은 책을 만들어 봅시다.

두꺼운 A4 용지를 8등분 한 후, 가운데 두 칸을 자르면 8면짜리 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2면은 앞표지와 뒷표지로 활용하고, 나머지 6면에 내가 쓴 글을 배치합니다.

앞표지에는 제목과 그림을 그려 넣고, 뒷표지에는 이 책을 소개하는 한 문장을 넣어 보세요.

책이 완성되면 교실 뒤편 사물함 윗 공간을 이용해 작은 전시회를 열어 봅시다.



심화학습

영화 〈레이디버드〉를 감상한 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그레타 거윅 감독, 〈레이디 버드〉, 2018년

열일곱 살 크리스틴은 스스로에게 '레이디 버드'라는 이름을 붙이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신을 '크리스틴'이 아닌 '레이디 버드'로 불러달라고 요구합니다.

레이디 버드는 엄마와 사이가 좋지 않고, 가족과 학교, 고향이 모두 초라하다고 생각합니다. 뉴욕 같은 멋지고 큰 도시의 대학으로 진학해서 고향을 탈출하는 것이 꿈입니다. 그러나 학업 성적은 부진하고 집안 형편도 넉넉지 않아 꿈을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특별하기를 바라지만, 평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자존심으로 한껏 부풀었다가 이내 불안감에 어쩔 줄 몰라하는 레이드 버드의 이야기를 함께 감상해 봅시다.

1.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2. 영화 속 레이디 버드의 모습에 공감이 가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3.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 말하고자 한 바는 무엇일까요?
4. 『오직 토끼하고만 나눈 나의 열네 살 이야기』와 영화 〈레이디 버드〉의 공통점을 찾아봅시다.
5. 내가 나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인다면 어떤 이름을 붙이고 싶은가요?